

‘인물’을 고리로 서술한 서양철학의 역사

레오 스트라우스 엮음 「서양정치철학사」

매우 방대한 서구 지적 전통을 하나의 고리로 매듭짓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사상이든 그 시대나 사회의 독특한 상황에 어느 정도 얽매어 나타나기 때문에 수천년의 역사적 전통을 지닌 서구 전통사상을 꿰뚫는 어떤 실마리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서양의 학문을 낫선 문화적 전통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언술의 교류에서 어떤 일관된 흐름을 찾으려는 시도는 당연한 추세이자 우리의 오랜 바람이다.

그러나 퀘퀘한 도서관 한 구석 아직 첫장조차 넘기지 못한 먼지 쌓인 고서들이나, 읽어도 명쾌하게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숨은 뜻을 감춘 서양의 고전을 들추면서, 묘한 좌절감마저도 느낀다. 그 때문인지 우리들은 책방으로 달려가 백과사전식으로 나열된 개론서를 통독한 후 마치 서양의 전통을 한눈에 꿰뚫는 자세로 읊조리는 손쉬운 방법을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움터오는 자책감과 좀더 확실한 앎을 바라는 열정이 동시에 우리를 괴롭힌다.

여기 매우 낫선 서술방식의 책이 있다. 서양 정치철학을 인물 중심으로 선정,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술한 「서양정치철학사」(레오 스트라우스 엮음, 김영수 외 옮김, 인간사랑)는 이미 스피노자의 정치철학을 명쾌하게 해설한 바 있는 레오 스트라우스가 논문을 선별했다. 그는 난해한 서양고전을 일반독자가 접근하게 쉽게, 그러면서도 그 미묘한 논변을 손상시키지 않는 논문들을 수록했다. 그럼에도 이 책은 쉽게 읽어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매 논문마다 서술자의 사상의 평이한 해설뿐만 아니라 서술자의 독특한 논변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 진의를 파악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비단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에게도 한번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이 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이라면 서양고전을 현대감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원전에 대한 훈고학적 해석에 치우치지 보다는 서양의 고전을 변혁의 시대의 모습에 비추어 그 물음 자체의 진의 및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것은 무엇보다 뜻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연구방법론을 채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될 사항은 원전과 우리 과제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그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가 제기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반성과 난해하기 이를 데 없는 원전을 읽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 현

실을 돌아보면, 신뢰성 있는 번역서의 부족과 이렇다 할 문제의식 없는 접근방식이 지배적일 때, 이런 논쟁적 저술을 갖고도 그 원전과 대조해 다시 비판해볼 수 있는 공간마련이 어려운 현실은 아마도 우리들의 불행이자 또 과제인 듯하다.

김소영

서울 동대문구 청량2동 580번지

「벽오금학도」

요즘 내가 만나고 있는 이외수의 「벽오금학도」라는 그림속 인물들은 국전에 출품된 그림, 유명 박물관 깊숙히 감춰진 그림, 그 어느 그림속 인물들보다 멋지다.

그 그림은 보는 사람에 따라 인물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데, 내 눈에 비친 그들을 소개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막 속에 감춰진 우물처럼 시원하고도 맑은 맛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 자연, 예술에 대해 그 누구보다 깊이 있고 서늘한 눈빛을 지닌 그들, 만나는 우리에게 정성으로 대하기에 만날수록 참기쁨을 맛보게 하는 그들, 먼지투성이의 혼탁한 세상이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들. 난 이들이 꼭 그림속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크게 눈을 뜨고 내 주위를 살펴보니 숨어있지만 아직은 당당히 살고있음을 알았다.

욕심없는 참 아름다움에 대한 순수한 행위로서 예술을 꿈꾸는 이들, 새벽하늘처럼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굽어보는 지혜로운 이들, 일상에 끌려가지만 자신만의 잣대를 놓치지 않으려는 凡人들, 타락한 세계에 융합할 수 없어 순결한 영혼에 상처입은 이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벽오금학도」 외에도 우리의 「현실」이라는 그림속에서 나와 함께 울고 웃으며 성내고 즐거워하면서 숨쉬고 있었던 것이다.

이외수는 강은백이란 백발의 동안을 지닌 주인공이 「벽오금학도」를 찢으므로써 오학동이라는 그림속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데 난 그를 좀더 이곳, 우리 세상에 붙잡아두고 싶었다.

우리들 모두가 등을 돌리고 빗장을 닫아걸어 강은백을 외롭게 만들고, 그가 더욱더 모태처럼 편안했던 오학동을 그리워하게 만들었지만, ‘아직은 아름다운 세상이구나’라고 가끔은 중얼거릴 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가 좀더 우리곁에 머물러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켜봐주었으면 싶어

서였다.

그러나 지금을 완전한 절망의 시대라고 부르고 싶진 않다. 그것은 이 그림을 그린 작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벽오금학도」 저편의 세계로 몇사람은 떠나버렸지만, 침한스님과 백득우처럼 냄새나는 세상에 고산목월의 그림같은 난초향기를 피워올릴 수 있고, 핏발선 눈보다는 마음으로 사물을 볼 수 있으며, 하찮은 미물이라도 그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곁에 붙여주었기 때문이다.

우리세상이 바람빠진 풍선처럼 방향감각을 잃을 때, 그림속 인물들은 어쩌면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고, 그 그림을 그린 작가는 춘천 어느 한 곳에 지켜서서 날카로운 직유의 세계가 아닌 모든 것과 합일이 가능한 부드러운 은유의 세계를 위해 더 힘찬 붓질을 하리라.

올바르게 보는 것이 바른 행동을 움트게 하는 ‘씩’ 입을 「벽오금학도」를 보며 느꼈다. 이 그림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 속에서 오히려 자유로운 그 사랑스런 인물들을.

조은경

서울 동작구 상도2동 184-229(27/6)

「푸코, 마르크시즘, 역사」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안방에서 접하는 우리에게도 미셸 푸코라는 이름은 매우 낫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지성계는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을 들먹이지 않아도 푸코의 저작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왜 우리는 미셸 푸코를 읽어야 하는가? 왜 미셸 푸코는 현대사상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인물인가? 미셸 푸코의 저술이 벌써 여러편 우리말로 번역된 상황을 감안해보면 한 번쯤은 물어져야 할 물음이다.

마크 포스터가 해설한 「푸코, 마르크시즘, 역사」(마크 포스터 지음, 이정우 옮김, 인간사랑)는 우리가 제기한 물음에 선뜻 분명한 답을 제공한다. 포스터의 저술을 파헤치면서, 우리는 미셸 푸코 자신의 저술에서 발견되는 난잡함, 어리둥절함 대신에 푸코 자신이 제시한 무수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 배후에, 또 그 역사적 사건의 행간에 묻혀 고요히 잠들고 있는 숨은 뜻을 읽어내는 재미를 만끽한다.

마크 포스터가 제시한 미셸 푸코 사상의 이해의 단서는 미셸 푸코가 어떻게 마르크스명제가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했는가라는 물음이다. 그래서 마크 포스

터는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힘입어 마르크스 자신이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공장 밖’의 소외, 즉 일상성의 소외에 끼어들었다고 한다면, 미셸 푸코는 더 나아가 이러한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일상성 비판에 힘입어 현대는 마르크스가 제기한 물음 자체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으며, 현대가 안고 있는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이런 점에서 푸코는 철저히 반마르크스주의 선상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미셸 푸코의 저술은 이보다 한결 급진적이다. 왜냐하면 역사를 어떤 연속성의 선상에서 이해하려 했던 전통역사연구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현대는 과거와의 단절하에서 현대는 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그 지배구조가 나타난다.

마크 포스터는 미셸 푸코의 논조가 기본적으로 다음의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 푸코는 현대사회를 과거사회와는 전혀 다른 특질을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요즘 유행하는 용어법으로는 그 사회구성체가 다르다. 과거 자본주의 사회가 ‘생산양식’이 그 근간들이라면 현대사회는 ‘정보양식’이 지배하는 사회다. 따라서 새로운 지배기술이 요구된다. 둘째, 마르크스의 기본교리인 사적 유희론과 변증법의 포기이다. 앞의 가설이 이미 암시하듯이 새로운 변혁시대는 새로운 지배양식을 요구하며, 따라서 그 분석틀도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전 마르크스이론의 기본교리를 체계적·사실적으로 논박한 미셸 푸코는 사회에 걸맞은 ‘논리’를 요구하고 있다.

정윤수

경기도 부천시 심곡1동 806-9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원미동 사람들」 「지구를 색칠하는 페인트 공」으로 이미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작가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이란 제목의 소설은 이전의 소설과는 또다른 감동과 따뜻함으로 내게 다가왔다. 마치 옆집에 사는 이준마와 같은 소박한 인상으로 삶을 살아가는 정다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펼쳐왔던 작가의 이번 소설은 그 주제로 보나 등장인물의 성격으로 보나 자못 충격적이까 지 하다.

이 세상에는 남자나 여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

다. 자신이 선택한 性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을 듯싶다. 특히나 여자쪽은 그 불만의 내용이 훨씬 더 다양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구조상 살아가기 위한 모든 장치들이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에게 더 이롭게 되어 있다는 것을 굳이 여성 해방론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의 인식으로 인하여 남자들은 남자라는 이름하에 여러 유형으로 여자들을 학대하고 멸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가 여자임을 한탄하며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강민주'는 남자 중심의 이 사회를 공격하는 테러리스트다. 강민주는 못 여인의 우상이기도 한 인기 절정의 영화배우인 백승하를 납치한다.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인기배우인 백승하가 선택된 이유는 백승하가 직접적으로 여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여자들로 하여금 남자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게 하고, 여자에게 주어진 가혹한 운명이 단지 남성을 잘못 택했기 때문일 뿐이라는 환상을 갖게 한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강민주의 백승하에 의해 서서히 변화된다. 강민주의 적인 남자들의 대표로 선택된 백승하는 지금 현재 남자로서 존재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드러움을 간직한 살아있는 존재이다. 이로 인해 강민주의 굴복이 아닌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남자들의 중심 논리인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한다는 논리를 작가가 의도적으로 피한 것에서 비롯된다.

격정적이면서도 섬세한 언어로 구성된 이 소설은 단숨에 읽힐 정도로 재미가 있고 스토리 전개가 변화무쌍하다. 어떻게 보면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강민주와 같은 여자들이 한명도 없을 것이라는 장담은 아무도 못할 것이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성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남성들이 한번은 꼭 읽어야 할 책이다.

김수진

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 525번지

「아침 꽃 저녁에 줍다」

단조로운 세상살이, 변화무쌍한 일련의 정치 판을 보면서 가볍게 내뱉을 수 있는 푸념만은 결코 아니리라. 그래, 우리시대는 진솔한 지식이 필요해. 말보다 실천을, 현실의 영욕보다

는 뜻심있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 그래, 변명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 시대에 무엇인가를 일깨워줄, 미래의 햇불을 밝혀줄 누군가를 우리는 분명 원한다.

착잡한 마음으로 노신의 「아침 꽃 저녁에 줍다」(이옥연 엮음, 창)을 한줄 한줄 읽어나갔다. 비단 가을 밤 지붕언저리로 매몰차게 몰아치는 바람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어두운 밤 침묵을 깨우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처럼 낭랑한 나만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책을 읽어가면서 언뜻 찾아오는 중압감, 그러나 차츰 남몰래 찾아오는 쫄쫄하고 잔잔한 힘과 박동을 함께 느낀다.

왜일까? 왜 무거움과 희망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구절구절에 절실히 배어나오는 비참한 현실과 그 현실이란 괴물덩어리를 움켜잡고 고민하는 한 진솔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리장성을 보면서 그 장대함이나 위대함을 찬양하기 보단 그 위대한 업적을 위해 피와 땀을 흘렸던 많은 노동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보통사람처럼 어린아이를 둔 가장으로서 남들보다 잘난 아이만들기에 여념없기보다는, 아이키우기의 어려움을, 그리고 어린아이의 얼굴 모습에 비친 우울함을 중국인의 현재 모습으로 본 그의 자상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반성없는 삶속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노신의 삶의 투영물을 접하면서, 무엇보다 절실히 느낄 수 있는 힘은 그가 맹렬하게 회구했던 조국이고 그 조국에 대한 그의 열렬한 사랑이다. 조국을 남의 형상으로까지 끌어올렸던 우리 한용운선생처럼, 그의 조국은 비록 외세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사리사욕에 휩싸인도 당들의 전유물로 전락해서도, 살아 있는 청년과 항상 미래의 햇불을 밝힐 수 있는 용감한 자가 있는 한 살아있는 님이다. 꺼지지 않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다.

그는 많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다. 허황된 욕망으로 가득찬 미래가 아닌, 냉혹한 현실을 먼저 깨닫고 좌절하기보다는 그 현실에서부터 새롭게 질주할 줄 아는 인간, 아니 중국인의 모습을 일깨워주었던 것이다.

이민수

서울 성북구 정릉4동 822-15

‘그리삼’이야기



『펠리컨 브리프』라는 소설은

요즘 우리나라 젊은 지식층에게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만 해도 그 소설의 작가 존 그리삼은

유명한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존의 에이전트가 그의 원고를 들고 5년 동안 출판사의 문을

두드리는 노력 덕분에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현재 그의 다른 소설들도 미국 The New York Times

Book Review의 베스트 셀러이며 2·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술기획은 뛰어난 작가이지만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능있고 앞날 창창한 여러분들이 없는 시간을 내서

달린 출판사의 문을 두드리는 수고를 덜어드리고

글 쓰는 데만 전념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솔기획

한술에서 하는 일

출판기획 · 출판제작대행 · 사사제작 · 광고기획 · 전자조판 · 디자인 등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세종문화회관 뒤) 대표전화 735-4997 팩시 722-3866